

본당 사목방향
“작게, 낮게, 함께”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년
8월 23일

제1104호

연중 제21주일

지난주 미사 참례 95명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신기술의 사용

8월

공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들이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5년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일의 강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고개성당 주임
주민기(베네딕도) 신부

말씀 KEY WORD

문

투라 θυρα

‘문’을 가리키는 ‘투라’는 안과 밖을 구분짓는 단절의 의미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해서 배타적인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The Pale Blue Dot)”

어둡고 광막한 우주 안에 먼지 한 톨 만한 크기의 빛을 내고 있는 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푸른빛의 작은 행성은 바로 우리들의 별 “지구”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중략)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는 저 점의 다른 영역을 지배하려고 끝없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푸른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의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COSMOS』中에서, 칼 세이건)

멀리서 찍힌 이 이미지만큼 인간의 오만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건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신하였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타락한 이방 문화에 빠져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부르짖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하느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유배라는 치욕적인 노예 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암흑시기를 통해 자신들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느낀 채 구원의 문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여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제2독서) 이스라엘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한 구원관도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려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제1독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오만과 배신으로 점점 퇴색되어 갔지만, 결국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성될 것입니다.

어둡고 광막한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 한 톨의 먼지로 돌아가게 될 운명을 지닌 너와 나. 허나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오만에 싸여 넓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아멘.

입당 337

입당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 오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 18-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8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19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푼,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못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20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 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21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시편 117(116), 1. 2. 7. 1. (◎ 마르 16, 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거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 5-7. 11-13

형제 여러분, 5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6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7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11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12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13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고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 음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2-30

그때에 22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 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 헌 243, 332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성 체 182,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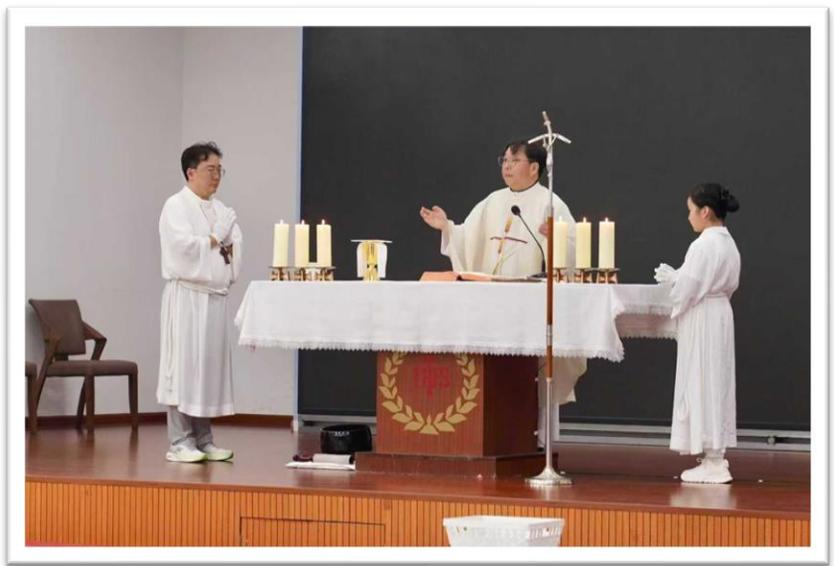
파 견 450

공동체 소식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지난 8월15일 대강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일학교 가을학기 개학 및 등록 안내

■ 개학일 : 9월 6일(토)

■ 교리와 미사 안내

간식과 교리 : 오후 2시~3시 30분

미사 : 오후 4시 교중미사

■ 등록 대상

✓ 초등부 ✓ 첫영성체반 ✓ 중고등부

■ 등록비 : 300元 / 1인

■ 신청기한 : 8월 16일~30일



< 결제 QR CODE >

< 선교위 월례회의 >

시간 : 8월 27일 12시

장소 : 사무실

< 2-2반 반모임 >

시간 : 8월 25일 월요일 12:30

장소 : PAIX Coffee 天河领展店

미사 후, 사용하신 성가 책은 반드시 반납해주시고
주변 선풍기도 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에 두고 가는 물건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여러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성당입니다.
뒷정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주님,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나누어 주소서

밤낮없이 공부하는 이 아이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당신 안에서 숨통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소서.

한 호흡으로 성실히 공부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 * 주님, 수험생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수험생 여러분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김응진 대건안드레아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김성란 엘리사벳, 박다해 렐리아, 유동훈 다니엘, 윤기영 사도 요한,
임정은 마리스텔라, 주인성 시몬, 차준연 안드레아, 최현구 요셉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들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웬성

■ 증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Y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SBC 한국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둥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둥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 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 QR 코드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래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설치해 주세요.



gzkorcc.com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홍보 위원회